

Agnes Moore / 아그네스 무어



Kate McKinnon

~~(3년째 초보인..)~~ 이모!

36yrs / 167cm / Freelancer

눈에 넣으면 조금은... 애플 조카 세실리 (11살, 여아, 매우 과격해 찢어먹은 옷이 한 박스는 됨. 인생의 쓴맛을 너무 일찍 맛봄.) 와 함께 살고 있다.
싱글맘인 언니 재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어 세실리를 돌보지 못하게 되자,
집을 제공해준다는 조건으로 아그네스에게 조카를 대신 돌봐줄 것을 요청했다.
하루가 갈 수록 치솟는 뉴욕의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아가던
아그네스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다. 그게 벌써 3년 전 일인데... 여전히
서툰 이모지만 아침마다 새집을 짓고 눈도 못 뜨면서도 힘겹게 일어나는 아그네스가
불쌍했는지 세실리는 혼자서도 잘 하는 아이로 의젓하게 자라고 있어, 아그네스는
그저 대견할 뿐이다...